



# 날마다 흥범도장군

2019.12 제23호 겨울

발행인 우원식 편집인 홍순계 [www.hongbumdo.com](http://www.hongbumdo.com) 창간 2014년 6월 1일



## 〈이사장 신년사〉

# 2020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 반쪽짜리 우리 역사를 완성하는 독립전쟁 100주년 준비에 함께 합시다

흥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원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는 모든 일 넉넉하게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2005년 기념사업회가 창립된 이래로 가장 바쁘고 의미 있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의미를 더 깊게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와 발맞추어 기념사업회도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작년 4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셨을 때,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것은 기념사업회를 고려인과 현지교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크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흥범도장군 유해 봉환 협조를 직접 구하면서 유해봉환에 힘을 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봉오동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봉오동전투)가 개봉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흥범도장군의 삶을 재조명하는 대규모 음악극이 만들어지는 등 어느 때 보다도 흥범도 장군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기념사업회의 역할도 컸던 한 해였습니다.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을 한 해 앞둔 시기에 개최된 ‘봉오동전투 전승 99주년 기념식’과 ‘흥범도장군 순국 76주기 추모행사’가 기념사업회 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규모로 거행됐습니다. 흥범도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보훈처, 육군사관학교, 해군, 독립운동가 기념단체, 보훈단체, 노동계, 문화계 등 각 계 각 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흥범도 장군의 위상을 한 층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역사학계의 꾸준한 연구와 학술회의를 통해 흥범도 장군의 일생과 업적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봉오동·청산리전투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2020년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회’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흥범도장군의 관심과 위상을 제고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기념식 뿐만 아니라 소설, 다큐멘터리, 콘텐츠 경연대회 등을 통해 오랫동안 국민들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는 독립운동가로 남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100년 전 그날, 우리는 함께 하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와 독립지사들이 아직까지도 올바른 빛을 보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억 속에 멀어진 채 역사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반쪽짜리 우리 역사를 완성하는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 준비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5년 동안 회원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도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는 길을 더 크게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사)흥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 <특별기획: 2020년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 사업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봉오동전투 당시 사용했던 태극기.  
얼룩은 핏자국<독립기념관>

기념사업회는 내년 2020년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독립전쟁’으로 규정하고 ‘독립전쟁 100주년을 새롭게 조명해 가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내년 사업을 위한 총예산 15억9천5백 만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비를 유치했다. (국비 12억7천6백 + 서울시 2억9천9백 + 자부담 2천)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원식 이사장이 직접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기념사업회의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수 차례 관련 회의를 하는 등 기념사업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



우원식 이사장, 양승동 KBS사장과  
100주년 기념 사업 논의

## <사업추진 협의과정>

- 19.05.22. 이사장, 이낙연 총리 만나 독립전쟁 100주년 사업 제안
- 19.05.30. 2020년도 독립전쟁 100주년 사업 예산 건의
- 19.06.24. 독립전쟁 100주년 사업 국무조정실 T/F팀 구성 (국무조정실, 국방부, 문체부, 국가보훈처, 기념사업회)
- 19.07.02. 김좌진, 이범석 기념사업회와 공동추진협의
- 19.07.26. 국무조정실 T/F팀 첫 회의
- 19.10.08. 100주년 기념사업 서울시 후원참여 및 예산지원 요청
- 19.12.06. 100주년 사업관련 2020년도 정부예산안 통과 및 확정 (국비 12억7천6백)
- 19.12.16. 100주년 사업관련 2020년도 서울시예산안 통과 및 확정 (서울시 2억9천9백)
- 19.12.17. 이사장, KBS사장과 기념식 및 음악회 등 구체적 사업 논의



우원식 이사장, 양승동 KBS사장과  
100주년 기념 사업 논의

## 2020년도 흥남도장군 기념사업회 사업 소개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및 열린음악회**  
- 2020.06.07. 일요일, KBS와 협의 중



**독립전쟁 100주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 60분/편, 총 3편



**흥남도장군 소설 출간**  
- 2020.09. 중 출간 예정



**흥남도장군 순국 77주기 추모식**  
- 2020.10. 21. ~ 25. (예정)  
-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크즐오르다 방문



**제1회 흥남도장군배 전국 사격대회**  
- 대한사격연맹과 협의 중  
- 대상 : 중고등부



**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공동행사  
- 전승기념식, 독립군 체험, 스탬프 투어, 사진전시회 등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야외공연**  
- 2020.06.06. ~ 07. (2회 공연 예정)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항일무장독립운동 100년 기념 연극**  
- 전국 4개 도시 순회공연  
- 주관: (사)한국연극협회



## 홍범도장군 순국 76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국회서 개최!

문화상 국회의장,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 참석해 추모사 낭독  
반병률 교수의 사회로 학술회의 진행... '독립전쟁 100주년'의 의미 되새겨



10.25(금) 오후 2시 국회에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는 홍범도장군 순국 76기를 맞아 추모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을 한 해를 앞두고,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한국독립운동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학술회의에 앞서, 추모식에서는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문화상 국회의장과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추모사를 통해 홍범도 장군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항일 독립전쟁의 출발점이었던 봉오동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삶과 업적을 재평가하는 일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내년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독립전쟁·봉오동·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의 의의와 역사인식>이라는 큰 주제로 홍순계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독립운동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그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은 항일 무장 투쟁이며 한말 의병전쟁에서부터 독립군, 한국광복군에 이르는 무장독립운동사의 주요 사향을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홍범도 일지 재검토를 통해 본 봉오동·청산리전투”라는 주제로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이 맡았다. 홍범도장군의 일지에 나타난 전투관련 중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실상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전투상황과 관련한 연구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봉오동전투에 대한 일본측 전과기록의 검토”라는 주제로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맡았다. 봉오동전투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한 자료(봉오동부근전투상보, 홍범도일지)와 이에 대한 최근의 평가 등을 섭렵하여 봉오동 전투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근거를 규명했다. 종합토론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인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여 2시간 가까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특별기고> 독립전쟁 백주년의 새해를 맞이하며



**황선익**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1920년 독립전쟁에서 이뤄낸 승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전환점”**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자 의병장 출신 독립군 지도자인  
홍범도는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줘”**

**“백 년 전 피땀으로 이뤄낸 독립전쟁의 역사를  
정립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몫이자, 역사적 책무”**

백 년 전인 1920년은 독립전쟁의 해였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 1월 ‘국무원 포고 제1호’를 통해 “우리 대한의 국토를 적의 수중에서 광복하며 2천만 동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할 독립전쟁을 공포하였다. 독립 전쟁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로 올라선 여름, 봉오동에서 벌어진 독립전쟁 제 1회전은 대한독립군의 큰 승리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제2회전인 10월의 청산리전투에서 대한독립군은 또한 다시 일본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였다.

1920년 독립전쟁에서 이뤄낸 승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가해진 일제의 탄압과 학살에 몸서리치던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함은 물론 만주에서 양성된 독립군의 저력을 실감하게 하였다. 이후 만주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만주 독립군의 청년들은 20년간의 독립투쟁을 거쳐 장년이 되어 한국광복군의 주역이 되었다. 반면 계속된 패전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가 된 간도 한인사회를 파괴하고자 대학살을 벌였다. 일본은 침략과 강압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과오를 범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위원 포고문’에서 국내외 혁명 동지의 투쟁에는 두 가지 원동력이 있음을 명심하라고 주문했다.

“하나는 동삼성 교포들의 20년 혈전(血戰)이 그것이며, 또 미주·멕시코·하와이(美·墨·布) 각지 교포들의 20년간 씬 없는 경제적 피땀(血汗)의 희생적 후원이 그것”이었다.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만주 독립군의 혈전은 중요한 서막이었다. 그러한 독립전쟁에 홍범도는 ‘불패의 전설’로 기억되었다.

홍범도 장군이 주목되는 것은 불패의 전설, 봉오동전투의 명장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자 의병장 출신 독립군 지도자인 홍범도는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구국운동에서 독립전쟁으로 전환한 그는 계층과 세대를 초월하여 끊임없는 무장투쟁과 혁명을 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냉전으로 인해 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 했다.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발족된 것이 2005년이요, ‘홍범도일지’가 국내에서 활자화된 것이 2014년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져있었던 것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의 해가 가고, 독립전쟁 백주년의 새 해가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백주년을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독립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홍범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역사적 기념은 행위로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로서 공유되고, 기억과 기록으로 계승된다. 독립전쟁 백주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독립전쟁 1회전’이라고도 불린 봉오동전투, 그리고 청산리전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과 오해들이 적지 않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의 역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독립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총서와 자료집이 전무한 것도 사실이다. 광복 후 ‘독립군전투사’를 처음 공간(公刊)한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가 빛을 본 지 50여년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일이다.

백 년 전 피땀으로 이뤄낸 독립전쟁의 역사를 정립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몫이자, 역사적 책무이다. 독립된 나라에서, 그러나 여전히 분단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이 땅에서 자주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 특별 인터뷰

**23년간 역사 강의를 하셨다.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청산리전투는 역사책에서 큰 비중으로 다루이지 않고 있는데, 강의하실 때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원하는 건 역사외식 고취가 아니다. 그들이 강의를 들을 때 원하는 건 시험에서 만점 맞는 것이다. 그 본질을 채워주는 게 강사로서 제가 할 일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슴으로 역사의식이 고취되면, 머리도 그걸 잊지 않는다. 단순히 머리로 습득한 지식은 쉽게 잊히지만, 가슴에 묻어둔 지식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청산리전투 관련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각종 사료와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숙지하고, 감사하게도 제게 신이 내려주신 재능으로 최대한 현장감 있게 강의한다. 듣는 학생들은 저와 함께 100년 전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역사의 현장으로 여행했던 학생들은 관련 사실을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고 결국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역사외식도 고취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 저는 이렇게 역사를 가슴으로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의 반응은 상상하시는 그 이상이다.(웃음)

**역사 자체 보다 '사람'에 대한 매력을 먼저 느낀다고 들었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매력은 너무 많다. 그런데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묻고 싶다. 군인의 본질이 뭘까? 바로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게 홍범도 장군의 매력이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쟁에서 이겼으니 우리가 더욱 좋아하는 거지, 그분의 외모나 성품을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성품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 아니냐.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다. 이분은 싸움의 신이다. 전쟁의 신이다. '날으는 호랑이'라는 별명도 있지 않았는가. 최강 전투력을 지닌 강인한 장군. 그것이 첫 번째 매력이다.

두 번째는 홍범도장군의 성정이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모두 혼자 이룰 수 있는 업적은 아니었다. 군무도독부나 국민화군, 청산리에서는 북로 군정서군 등 많은 부대가 있었는데, 당시 활동하던 지역도 다르고 성향, 출신이나 이념도 달랐지만 자신의 기득권만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와 배려와 단합의 정신으로 승리한 전투가 봉오동□청산리전투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력을 우선시한 홍범도장군의 성정,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제 가슴을 뜨겁게 한다.

**봉오동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의 역사이지만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내년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 되는 해인데, 독립전쟁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나?**

# 설민석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협력했고, 나라는 망했지만 민족의 혼과 얼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저항은 무엇이었는가. 일단 손에 펜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셨던 수많은 열사들, 그리고 총칼을 들고 싸우셨던 의사들이 계셨다. 의사들은 보통 의열투쟁을 많이 하셨다. 한인애국단 등이 그랬다. 그런데 이것을 독립전쟁과 비교할 때,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나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독립전쟁은 규모면에서 직접적이며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의열투쟁도 독립전쟁도 그 숭고한 의미는 같으나 아무래도 조직과 군대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체계적인 면이나 상징적인 면에서 독립전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봉 의사도 의열단으로 활동하다가 1930년대에 조선의용대를 만들어서 독립전쟁으로 노선을 더욱 확대한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독립전쟁이 의열투쟁이 규모면에서 한 단계 더 커지고 진화된 버전이라고 봤을 때 더욱 의미를 가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얼마 전 한 방송에 나와서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힘들 때 종종 이런 얘기하지 않나. 국가가 날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그런데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저는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면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시련을 겪는지 보여주는 수만 가지 사례 중 가장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가 고려인 강제이주라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에 물론 국내 민중도 짓밟히고 고생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알려진 국외 동포들의 사례를 보면 '아 이래서 나라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임금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던 동포들. 중국 땅에서 무시당하며 잡초처럼 살아간 동포들. 그리고 연해주의 우리 약 17만 명의 동포들은 구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에 떠밀려 추운 겨울에 가족우리에 실려서 저 먼 중앙아시아 별판에 놓이지 않았는가. 그때 애써 일군 땅을 떠나며 고통 받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과거와 현대로 이어지는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이래서 나라가 필요하고, 부국강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또 하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구소련정부에게 고려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높게 평가받고, 결국에는 권리도 인정받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존경심과 감사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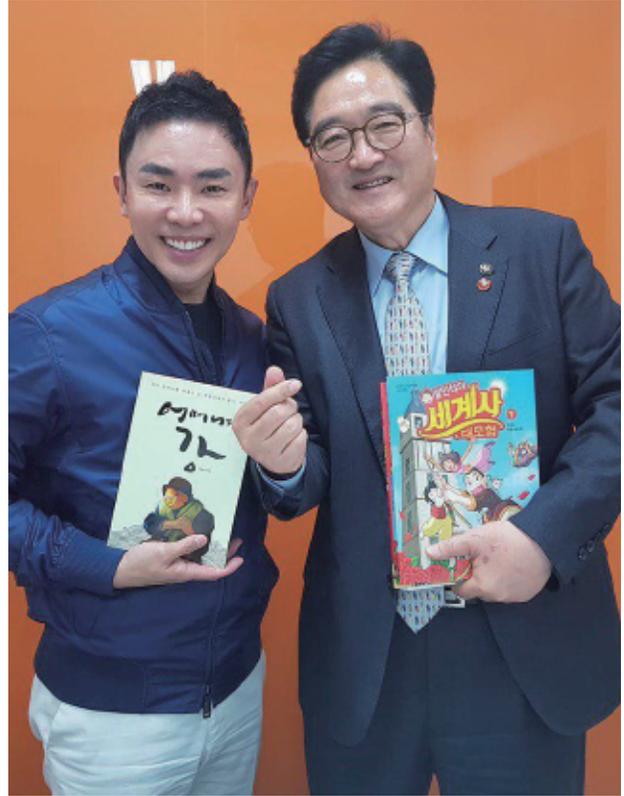
참고로 그 상황에 안 울면 비정상 아닐까 한다.(웃음) 오히려 울 것이 기사화된 게 이상하지 않나. 그 상황에서 울지 않은 전현우, 김종민 씨에게 어떻게 울지 않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이 부분은 농담으로 한 이야기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아픔을 겪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은 명료하다. 부국강병, 자주국방, 대동단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부강했으면 좋겠다.

**올해 봄 우원식 이사장과 만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부탁한 적이 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와 회원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여러분이 바로 홍범도장군의 후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 후손들이 유족회도 만들고 각종 활동도 하면서 자신의 조상이 어떤 업적을 이루셨는지 알리고, 홍보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홍범도장군의 후손은 없다.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강제이주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업적에 비해서 너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때마침 우원식 이사장이 직접 우리 연구소에 찾아오셨다. 그것도 혼자서 보좌관도 없이 대중교통으로 오셨다.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뻗더니 어깨에 기득권이 없으시더라. 정말 좋은 일하신다고 생각했다.

우원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홍범도장군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보시면 홍범도장군께서도 환히 웃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범도장군이 후손이 없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여러분이 홍범도장군의 진정한 후손이다. 존경한다.



**설만석 강사 대표이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석사  
 단꿈아이(대표이사), 단꿈교육(대표이사)  
 이투스 한국사영역 강사  
 온라인 교원연수원(티처빌, 한국교원연수원) 한국사 강사  
 EBSi, 메가스터디, 비타에듀 역사 강사

**수상내역**

2017년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특별상  
 2016년 대한민국 교육서비스 브랜드대상 역사교육부분 수상  
 2016년 대한민국교육산업대상 역사교육부분 수상  
 2014년 대한민국창조혁신지식인대상 역사교육부문 수상

## 공희정 작가 연재 (2)

###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 <의병투쟁> 1895 ~ 1908 산포수로 살며 항일의 정신을 키우다

첩첩산중에 살고 있는 그에게도 바람은 세상 소식을 전해주었다.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을 만큼 뭐 하나 받은 것 없는 나라였지만,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의 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그를 더 이상 산속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길을 떠난 그는 강원도 회양에서 장안사로 넘어가는 길목인 단발령에서 황해도 서흥 출신 포수 김수협을 만났다. 국가가 불운에 처해있는데 백성의 한 사람으로 어찌 먹고사는 일상에만 안주할 수 있겠냐,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의 뜻이 같음을 알았다. 의병 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은 그들에게는 남은 화승총 한 자루씩밖에 없었다.

이미 연발식 신식 무기인 무라타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5년 철령(鐵嶺)에서 이들은 일본군 12명을 섬멸하고 최초의 승전보를 올렸다. 이후 뜻을 같이 하는 포수와 농민을 모아 총 14명으로 의병 부대를 조직했다. 이후 의병대장인 유인석을 만나 그의 부대에 합류하였다.

애국심인지, 정의감인지 명확하진 않았지만 불의를 처단해야 한다는 생각만은 뚜렷했다. 정규군이 아니어도 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일본군과의 전투는 쉽지 않았다. 세 차례의 전투에서 패하고, 동지였던 김수협도 전사했다. 유인석과도 훗날을 기약하며 헤어진 후 황해도 연풍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서 금전판 노동자로 은신했지만 일본군이나 밀정의 추격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홍범도는 경계가 심하지 않는 변방으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길을 떠난 그가 향한 곳은 함경도였다. 가는 도중에 박말령에서 일본군 3명을 때려 눕히고 총 3자루 등을 빼앗았고, 그곳에서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만났다. 꿈인 지 생시인 지 수없이 자신의 불을 곱집어보았다.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고 서 있는 어린 아이는 자신의 아들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렇게 아내와 아들을 만난 것이 헤어진 지 5년만의 일이었다. 조실부모하고 천하를 떠돌던 홍범도였기에 가족과 함께 하는 일상은 더없이 행복했다. 이어 둘째 아들 용환이 태어났다. 가족만이 나눌 수 있는 정을 느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의병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평안도 양덕, 성천, 영원 등을 누비며 단독 의병활동을 이어갔다. 작은 힘이라도 모으면 나라의 운명이 암흑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러는 사이 20세기가 밝았다. 제국들의 야욕은 한국을 뒤흔들었고, 들불처럼 피어올랐던 의병운동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듯 야수와 같은 일본에 의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병들은 남만주나 백두산으로 근거지를 옮겨 은둔생활에 들어갔고 홍범도도 사력을 다해 투쟁했지만 의병운동을 접할 수 밖에 없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은 한국내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앞세워 한국에 진입해 왔다. 혼란의 시절, 제국들로부터 백성을 지켜내야 할 관리들은 포수들이 힘들게 사냥해온 호랑이 가죽이나 사향, 녹용 등을 막무가내로 뺏어 사리사욕을 채웠고, 일본인들은 항일세력들을 축출해내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 결국 1904년 중반 홍범도는 일본인들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6개월 만에 탈옥하여 그 해말 항일 의병 봉기의 깃발을 다시 들었다. 이 시기 그의 의병 활동에 대한 기록은 상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가장 먼저 의병이 되었고 가장 나중까지 의병 활동을 했던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시기의 그의 활동 또한 뜨거웠을 것이다.



#### 공희정 작가

- 2006~2012 조선닷컴 <드라마 살롱> 연재
- 2015~2016 서울신문 <컬처 살롱> 연재
- 기타 주간조선, 한국일보, 국민일보, joins닷컴
- 등에 방송 관련 글 연재

현재 mbc 시청자 평가원으로 활동 중, 인사이드 케이블 <케이블 살롱> 진행  
저서 : <기자가 말하는 기자> (공저),  
<드라마의 모든 것> (공저)

## 이동순 시인(영남대 명예교수) '강제이주열차' 시집출간 기념 축하모임 개최



흥남도장군기념사업회는 이동순 시인의 신작 시집 <『강제이주열차』 출간 기념 축하모임>을 지난 10월 15일에 열었다. 이 모임에는 본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을 비롯해서 황원섭 부이사장 등 임원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반병률(한국외대 사학과) 교수와 김응교(숙명여대) 교수로부터 각각 강제 이주의 역사적 배경과 시에 대한 평을 들었다. 이동순 시인은 이 자리에서 직접 시를 낭송하여 강제 이주당하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던 고려인들의 한 맺힌 아픔과 강제 이주 역사의 처절한 전모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 흥남도함장 이·취임식, 홍순계 상임이사 참석해 감사패 전달



해군잠수함사령부 흥남도함장 이·취임식이 12월 10일 오후 2시, 진해 잠수함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2대 함장인 조환래 대령이 이임하고 이용태 대령(대령잔급)이 3대 함장으로 취임했다. 이 자리에 본 기념사업회 홍순계 상임이사가 참석해 우원식 이사장을 대신해 조환래 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18년 1월 2대 함장으로 취임한 조환래 대령은 2년여의 재임기간동안 무적의 잠수함 흥남도함의 함장으로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흥남도 장군의 강인한 기개와 애국정신을 기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10월 임원 회의 개최



기념사업회는 지난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국회룸에서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 논의안건은 신임이사 선출의 건과 사무처 보임자 급여결정의 건으로 3명의 신임이사가 선출되어 우원식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이사는 박드미트리 카자흐스탄 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 양정숙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이다. 또한 한동건 신임 사무총장과 이화사무국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 12월 임원회의 개최 및 송년회



본 기념사업회의 12월 임원회의가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에서 12일에 열렸다. 21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의 신임이사를 선출했고 2019년 사업보고와 2020년도 기념사업회의 사업 계획 및 정관개정을 심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선출된 신임이사는 김양진 BC카드 상임감사, 제종길 (사)도시·인·숲 이사장,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태원 NH투자증권 Wholesale사업부대표, 김우진 케이잡스 대표이사이다. 1시간 30분이 넘는 회의를 마치고 의원식당 국회룸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과 함께 소박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이사장은 내년은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의 중요한 해로 본 기념사업회 이사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행사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 우원식 이사장, 의열단 100주년 기념식 독립운동가 후손 대표로 축사와 애국가 제창



지난 11월 10일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의열단 100주년 기념식'에 우원식 이사장은 독립운동가 후손 대표로 축사를 하고 함께 애국가를 제창했다.

우원식 이사장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당당한 무장투쟁의 역사가 있다. 우리 사회를 아직도 짓누르고 있는 곳곳의 친일세력을 쓸어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의열단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초개와 같이 던진 의열단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벗겨 내야한다”고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이사장을 비롯해 안민석 의원, 박상득 국가보훈처장도 자리했다. 서울시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에 초반 박원순 서울시장도 영상으로 축사했다.

## 우원식 이사장, 청소년 대상으로 의열단 100주년 기념 초청 강연



우원식 이사장은 지난 10월 25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의열단 10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주제는 '의열단 그리고 인생의 뜻대 외할아버지 김한'으로 의열단 역사에 대한 강연을 했다. 우원식 이사장은 의열단 단원인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김한 선생은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사건에 연루되어 5년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다.

이날 우원식 이사장은 의열단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의열단의 잇따른 폭력투쟁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도 숨죽이고 살아온 한민족과 독립운동가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줬다”고 강조했다. 또 이 날 우원식 이사장은 저서 < 어머니의 강 >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며 103세 어머니인 김례정 여사의 굴곡진 삶을 소개해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독립운동가 가족의 곤궁하고 일제에 감시당하던 고달픈 삶에 대한 이야기도 실감나고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며, 고려인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아픈 상처에 대한 이야기도 학생들에 전해 관심을 끌었다.

## MBC '선을 넘는 녀석들' 흥범도 장군 관련 방영

고려인 강제 이주 역사에 뜨거운 눈물 흘려



지난 11월24일 방송된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서는 러시아에서 고려인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이 그려졌다. 러시아에 방문한 이들은 러시아 '라즈돌리노예역'에서 고려인들의 혹독했던 삶을 떠올리며 설민석 강사는 “고려인이 그토록 힘들게 지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어 봉오동 전투의 '레전드 의병장' 흥범도 장군의 쓸쓸한 말년이 소개됐다. 의병장으로 큰 활약을 펼쳤던 흥범도 장군이었지만, 그 역시 고려인으로 강제이주를 당해 고려극장에서 야간수위로 일하며 고단한 노년을 보내야만 했다. 가수 김종민은 “나라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만 느꼈었는데, 고통 받은 이들의 삶을 보며 크게 와 닿았다”고 소감을 표했다.

##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의 신임 이사를 소개합니다



김양진 이사  
BC카드  
상임감사

은행과 증권, 카드사 등에서 37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금융맨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임원만 10년 넘게 하면서 60대 중반까지 현직에 있으니 복 받은 것이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의 출세와 살아남음에만 목메어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되면서 주위의 어려움이나 사회의 부조리에도 눈이 가더군요. 톨스토이 말했습니다. “富라는 것은 분노와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고, 널리 뿌리면 주변을 비옥하게 한다.”라고요. 제가 용기가 없어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왔을 수도 있고요. 마침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우원식 의원께서 좋은 일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느냐고 제가 권하더군요. 그 사업이 만주에서 가난과 추위와 싸우면서 대한독립군 대장으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해방의 기쁨을 불과 2년 앞두고 천대와 멸시를 받는 러시아의 강제이주민, 고려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친 홍범도장군을 기리며, 그의 후손들을 돕는 일이라고요. 경제대국 12위의 풍요로운 조국을 살아가는 혜택 받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도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평소 좋아하기도 했지만, 용기 없어 나서지 못하는 우리 베이비 붐세대를 대신해 솔선수범하여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계신, 검증받은 우원식 의원이라면 믿을 수도 있어 기꺼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가 밀알이 되고 경종이 되어 순수한 뜻이 사회에 널리 퍼져 보다 밝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양정숙 이사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 신임이사로 참여하게 된 양정숙 변호사입니다. '홍범도 장군', 저는 올해 영화와 악극 2가지 버전을 보았습니다. 영화 '봉오동전투'는 홍범도 장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고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평범한 독립의병이 중심이었던 반면, '극장 앞 독립군'은 홍장군님의 인간적인 면까지 조명이 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할수 있었을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구하면서 가족은 살리지 못하는 홍장군님 아들의 절규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마지막에 평범한 남편과 아내로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 행복했던 기억이 독립운동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홍장군님의 대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분의 유해를 아직까지 고국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항일독립운동가의 유해가 하루속히 조국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저도 우리 기념사업회 이사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웅 이사  
법무법인 성현  
변호사

저는 우원식 의원님의 소개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를 알게 되었으며, 평소에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평생을 항일 무장 투쟁으로 살아오신 홍범도 장군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광복 74 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한민국이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통해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밑거름은 바로 홍범도 장군님께서 평생 간직하셨던 오직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애족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는 이 뜻 깊은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법인 성현의 대표 변호사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공익변호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공기업의 자문 및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정한 변호를 통해 사회 정의의 실현과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홍범도 장군님의 대한민국을 위한 고귀한 희생과 뜻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윤경 이사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임정수립 100주년을 기해 임정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백년 편지>에는 우원식 이사장께서 독립운동가이신 외할아버지 김한 선생님께 바치는 추모편지도 실렸습니다. 매우 감명깊은 이 편지에서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게 된 연유도 말씀하시어 기념사업회를 알게 되었고 이사장님의 권유로 기꺼이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홍 장군께서 항일독립운동사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셨고 비극적인 투쟁의 삶을 사셨음에도 그 동안 역사적인 평가가 인색했고 저부터 잘 모르고 있었다고 반성합니다. 홍 장군의 삶을 재조명하고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 특히 내년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널리 알리고 회원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임원 연간회비 입금현황

이사장 우원식(5월), 명예이사장 이종찬(5월), 부이사장 황원섭(4월), 상임이사 홍순계(7월), 이사(가나다순) 김수송(5월), 김양진(12월), 김용환(4월), 김찬(5월), 김준목(4월), 김현권(4월), 김현정(4월), 남궁정(6월), 남인순(4월), 노정래(12월), 문현군(6월), 박완주(4월), 부윤경(5월), 석순용(5월), 손양호(11월), 양정숙(10월), 오세중(4월), 우난혜(5월), 유정배(4월), 이경철(4월), 이미자(4월), 이재호(9월), 정광균(10월), 정내하(1월), 정수진(12월), 제종길(12월), 조태수(4월), 최윤(11월), 최익훈(4월), 최재웅(11월), 한동건(7월), 한승관(4월), 한왕기(7월), 홍성덕(3월), 홍성중(1월), 홍의락(6월), 홍이표(7월), 홍재구(9월)

## CMS회원 회비 입금현황(2019.12.16. 현재 132명)

김권석, 김대영, 김성현, 김재형, 김정식, 김준수, 박국진, 박준영, 서경민, 성은하, 안영수, 이원형, 전광출, 전 준, 전흥기, 정동준, 정상섭, 지예은, 김관표, 이승룡, 김재구, 송다영, 박태근, 김상우, 강도연, 나명현, 조봉현, 김옥찬, 최재호, 황종섭, 김대환, 이병국, 이주열, 김태원, 김우진, 배영실, 이은우, 허양순, 최향수, 이영희, 이은영, 이영란, 이병룡, 여상연, 양미숙, 지현주, 지영순, 정윤미, 장송희, 신완철, 손여록, 석혜경, 박점조, 김선자, 김성미, 김미선, 이행란, 조영옥, 김신애, 엄기인, 석진경, 김미자, 홍영만, 김현정(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종우(하나카드), 송정화, 김성순, 이수연, 정성관, 이지선, 김도식, 지애숙, JIN CHUNXING, 김영진, 이성미, 고희오, 이순자, 정두영, 천상영, 김양미, 이우엽, 김영숙, 김성애, 이정원, 이해정, 김준영, 김사엽, 조현재, 서 민, 이태준, 강태영, 박석원, 김창환, 배규식, 신재면, 우문식, 조영제, 설정선, 정은숙, 윤여각, 임현문, 여은석, 맹진규, 노용기, 홍정희, 민기식, 정준수, 전성배, 이준호, 서양원, 전중선, 안태일, 이유창, 이현주, 이 진, 이대호, 유봉석, 김용경, 김거성, 황덕순, 이원정, 민병훈, 홍희령, 엄범용, 백장현, 한영우, 김학필, 손현상, 김재현, 이지련, 박조수, 박도산

## 임원명단

**이사장** 우원식(국회의원)

**명예이사장** 이종찬(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부이사장** 황원섭(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사** 박형상(변호사, 전 서울중구청장), 정기동(법무법인 세아 변호사)

**상임이사** 홍순계(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사무총장/이사** 한동건(주)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이사**

김경호(대구광역시 의료관광산업 자문대사), 김수송(주)이음컴넷서비스 대표), 김용환(전남남대부총장), 김준목(사)혁신경제 이사장), 김찬(한국사학진흥재단사무총장), 김현정(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형상(조이세무회계대표), 남궁정(노원구자전거연맹상임고문), 남인순(국회의원), 노정래(주)건화리CM본부사장), 류병균(평화전략연구소장), 문현군(한국노총부위원장), 박완주(국회의원), 부윤경(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석순용(특허법인신세기대표), 손광춘(출판사수서원 대표), 손양호(전 조계중중영박물관 후원회장), 오세중(대한변리사회 회장), 우난혜(사진작가), 위성근(국회의원), 유용(서울시의원), 유정배(대한석탄공사사장), 이경철(서울노원구의회 의장), 이명식(새마을운동중앙회사무총장), 이미자(전 종로구의회 의원), 김현권(국회의원), 이승중(네무스틱대표), 이재호(한국리싸이클링 대표), 임태성(재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정광균(주)미르나인 대표이사), 정내하(주)미네랄하우스대표), 정수진(하나카드 자문위원), 조태수(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최윤(E3PLANB플래너비대표이사), 최익훈(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한승관(대한변리사회회원이사), 한왕기(평창군수), 홍성덕(전주독일한국대사관공사), 홍성중(토금산업회장), 홍의락(국회의원), 홍이표(하이리빙대표), 홍재구(당정사적보존회회장), 홍종표(강동수산대표이사/회장)

**신임이사**

박드미트리(카자흐스탄 P&TEC 농업조정법인 대표), 양정숙(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 최재웅(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김양진(BC카드 상임감사), 제종길(사)도시인숲이사장), 김진형(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태원(NH투자증권 Wholesale사업부대표), 김우진(케이잡스 대표이사)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함께 독립을 완성해 갑시다

후원안내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가입 ☎ 02-784-3601

홈페이지 [www.홍범도.com](http://www.홍범도.com) (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